

전문가에게 듣는다

‘소통과 화합으로 거듭나는 불교’, 봉은사 사대 등 갈등과 불신으로 점철된 2010년과 달리 새해에는 더 나은 불교를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포교 현장에서는 매체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문화·미디어 산업 전반에 불교계의 관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아 대장경 발간이란 과업을 잇고 미래 포교에 앞서 나가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특집 코너를 마련했다.

# 대장경 전산화로 고려인의 꿈 재현을



이 지 범 고려대장경연구소 사무처장

2007년 4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선언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당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이어령 선생, 미국의 대표적인 동양학자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 등 200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함께 ‘천년의 지혜를, 천년의 미래로’라는 선언적 구호를 함께 불렀다. 이 때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립 스님은 “고려대장경 천 년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천 년의 해는 우리의 천 년입니다. 고려대장경 조성을 시작했던 고려인들에게 과거의 천 년이 있었고 미래의 천 년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과거의 천 년 그리고 미래의 천 년이 있습니다”라는 인사말로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각오를 밝혔다.

시와 경상남도도가 각기 ‘2011년 고려 초조대장경 천년기념사업’,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이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동참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주도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교계의 참여와 관심이 더욱 더 요구된다.

종립 스님의 제안과 같이 범국민적인 축제로 열리기를 바랐던 많은 언론, 문화 예술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 르네상스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그 원천을 고려대장경에서 찾았다.

그리고 2011년을 그 출발로 제시했다. 그 시작점은 대장경(Tripitaka)이다. 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장, 계율 및 그것을 해석한 율장, 경(經)의 주석문헌인 논장을 집대성한 것을 말한다. 고려에서는 3차례에 걸쳐 대장경이 간행됐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最古) 목판본으로서 세계유네스코가 1995년 세계문화유산(대장경판전, 국보 제52호)과 2007년 세계기록유산(팔만대장경판, 국보 제32호)으로 각기 등재한 <해인사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 1236~1251년)>보다 정확히 225년이 앞선 한국 최초의 한역대장경으로 동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이었다.

<초조대장경>은 중국 북송의 <개보대장

경>에 의하면, “현종 2년에 대장경을 조성하게 했다. 대장경을 찍어내는 판을 만들고 또 그것이 망가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망가지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대장경을 제작하게된 목적과 배경을 잘 드러냈다.

대장경에는 종교적 가치와 더불어 문화의 전파와 호국, 화합이라는 사상적이고 역사적인 내용 그리고 판각과 목판인쇄술, 장경판전의 건축적 요소까지 오늘날 포교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그 당시 우리는 매체혁명이라 할 수 있는 <고려대장경>이라는 최고의 목판 인쇄본과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장경>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해와 달이 함께 나란히 걸리고 귀신과 요묘함을 다무도록 해야 한다”고 대장경의 가치를 직언했다. 하지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처럼 지식과 문화를 아우르는 르네상스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초조대장경> 1000년을 맞아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 문화르네상스를 일으켜야 할 시점이다.

그간 몽고에 의해 소실된 것으로만 여겨졌던 <초조대장경>이 다시 발견됐다. 이어 고려대장경연구소가 2004년부터 6년간 걸쳐 디지털 전산화(DB)를 완료하고 복원간행 사업을 함으로서 대장경 역사의 공백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천년의 가르침을 모아 천년의 후손들에게 그토록 물려주고 싶어했던 고려 대각 국사의 뜻이나 못 고려인들이 열망했던 꿈을 다시 풀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려대장경>은 단지 경판이 아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우리 고유의 문화적 유산자가 담겨 있다는 정진홍 논설위원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2011년의 대장경 천년 기념 행사가 단지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 화합과 소통을 위한 축제로서의 가치와 천년의 문화를 가진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eb992002@yahoo.co.kr

## 대장경 전산화는 민족 화합의 새 계기 천년을 담보할 디지털 르네상스 이끌자

경)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판각된 목판대장경으로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보면 문화대백과사전 또는 문화총서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232년 몽고의 2차 침략으로 말미암아 팔공산 부인사에 목판본으로 보관된 <초조대장경>과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교장(일명 속장경)이 모두 불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고종 23년에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을 다시 조성하게 된다.

그 무렵 고려의 학자 이규보 선생이 쓴 <대장각판군신기교문(大藏刻板君臣祈告

# “전자책 시대, 불교출판 호기다”

다윈의 진화론은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진화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종은 퇴화한다는 이론이다.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로 하여금 진화할 것이냐 퇴화할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모바일(mobile)이다. ‘모바일 빅뱅’ ‘모바일 대혁명’으로까지 불리는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의 출현은 단숨에 세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어찌까지만 해도 모든 작업을 책상 위의 컴퓨터에 의존했다. 그런데 스마트폰과 아이패드가 상용화되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일할 수 있게 됐다.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도 매 순간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다. 동영상과 사진, 문자를 통해 실시간 세상의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시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세계’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의 등장은 세상이 돌아가는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만 해도 과거와는 천양지차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종이신문이나 종이책 없이도 신문을 읽고 책을 읽을 수 있다. 전자신문과 전자책은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에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단하게 다운로드된다.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스포츠 중계나 영화 같은 것을 보다가도 바로 꺼낼 수 있다.

새로운 세계에서는 ‘전자책(e-book)’이 여야 책이다. 전자책이란 음악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귀에 꽂고 다니는 mp3처럼 필요한 책을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로 다운로드 받아 읽는 책을 말한다.

책처럼 넘겨가면서 읽기도 하고 컴퓨터에서처럼 아래로 내려가면서 읽기도 한다. 소리 내어 읽어주기도 한다. 물론 전자책이 아직 대중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보급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세계적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의 경우 양장본 종이책 100권을 팔 때 전자책 180권을 팔았다고 발표했다(2010년 7월). 전자책 디바이스(기기),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을 통한 도서 콘텐츠의 유통은 놀라운 속도로 약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이책의 몰락과 전자책의 놀라운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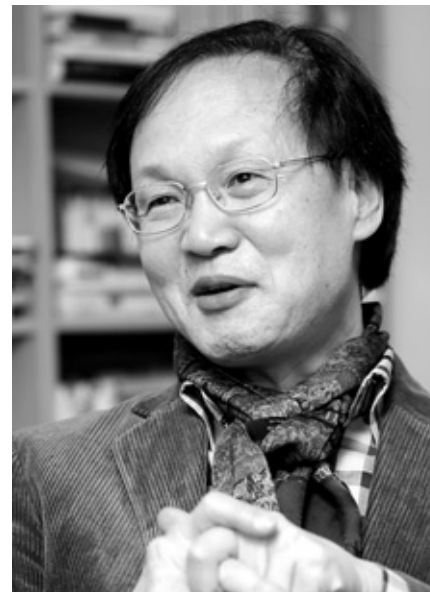
은 벌써 예견됐던 일이다. 국내만 해도 사전과 참고서 등으로 유명한 두산동아의 경우 2010년 매출액의 20%를 전자책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때 연매출 8천억원을 자랑하던 230년 전통의 브리태니커는 전자책 전환을 주저했던 과보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백과사전 시장을 대신하는 회사는 ‘엔카르타(encarta)’라는 CD롬 백과사전을 출시한 마이크로소프트사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의 등장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출판시장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독자의 개발과 사업영역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기쁘다. 우선 경비 측면에서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 3분의 2 이상의 제작비 절감 효과가 있다. 전자책은 종이와 인쇄와 서점이 필요 없다. 종이책 출판시대의 지출항목이 대폭 절감된다는 이점이 있다. 기존에 보유한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전자책으로 전환한다면 손쉬운 제작이 가능하다. 그림이나 동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텍스트 등 전자책 편집 기술의 진보는 이미 출판시장의 판도를 새롭게 재편하는 중이다. 한편으로는 누구든 약간의 기능만 익히면 자유로운 편집과 출판이 가능하므로

## 출판시장 전자책 출현으로 급변 불교출판 성공 위한 투자 시급

출판에 대한 출판사의 과점(寡占)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전자책이 시장이 언제쯤 보편화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술발전의 속도로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개인용 컴퓨터(PC)가 대중화된 기간이 불과 20년, 휴대전화의 대중화는 10년이 채 안 걸렸다. 휴대전화에 컴퓨터를 결합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기간을 길게 잡아 3년이라 한다면 전자 디바이스,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읽는 전자책의 상용화는 그와 비슷한 속



홍 사 성 불교출판 주간

도일 것이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보수를 못 맞추면 불교출판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대장경판을 정대(頂戴)하는 것보다 사구계(四句偈)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문서포교의 과제라면 빨리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한다. 전자책은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책으로는 안 된다. 눈으로 읽으면서 귀로도 들을 수 있는 책, 만화나 동영상을 보면서 시청각을 이용한 책이라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미래세계를 책임질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스타일이 아니고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겁먹을 것은 없다. 전자책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편집과 제작, 공급의 방식도 디지털화되어 점점 간편해지고 있다. 성패는 누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나서느냐에 따라 갈린다. 아이디어는 많으나 자본이 영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불교 전문 출판사들은 도리어 좋은 기회다. 제작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도 좋은 책을 쉽게 제작해 공급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사업이다. 전자출판의 시대를 맞은 불교출판은 기로에 서 있다. 여기서 살아남아 문서포교에 일익을 담당하려면 사교의 혁명적 전환이 무엇보다 급하다.

sshang4@hanmail.net

# 대한불교원효종 신년 하례 및 인원 확정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종도님들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제반일들이 부처님의 자운으로 원만회향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불기2555(2011)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코저 합니다. 현재까지 등록하신 종단소속원을 잠정적으로 집계하여 종단의 종도로써 권리와 의무를 부여 받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뜻있게 원만회향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일 시 : 2555(2011)년 1월 6일 오전 11시
- 장 소 : 대한불교원효종 목련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 문 의 : 총무원 02)735-0501~2 / 울산사무소 052)262-6857. 6859

총 무 원 장 향 운 합 장

\* 대한불교원효종은 신규등록, 재등록을 계속 받고 있으며, 종단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총무원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